

GICON, 아시아 영화·영상 공동제작 협력 확대

부산 ACFM서 홍콩·필리핀·몽골·타이베이 기관 협의 GCC 버추얼 스튜디오 홍보...공동제작·기술교류 추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아시아 주요 영화·콘텐츠 기관과 공동제작 및 기술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광주 영화·영상 제작시설의 해외 활용을 추진한다.

GICON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ACFM)'에 참가해 국내외 영화·영상 기관 및 기업과 제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GICON은 행사 기간 공동관을 운영하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의 버추얼 프로덕션 시설인 VX(Virtual eXtended reality)·MX(Multi eXperienced)·MR(Mixed Reality) 스튜디오와 광주CGI센터 등 주요 제작 인프라를 홍보했다. 2026~2027년 추진하는 영화·영상 제작 지원 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홍콩무역발전국과는 홍콩 필마트와 ACFM을 연계해 양 기관이 지원하는 기

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공동 쇼케이스와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필리핀 영화진흥위원회(FDCP)와는 양측 제작지원 공모에서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우대하는 방안과 장기적인 공동 매칭펀드 조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몽골 국립영화위원회와는 양국 촬영지를 활용한 영화·영상 제작과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제작 프로젝트에 GCC 스튜디오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기술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타이베이 영화위원회와는 실시간 3차원 배경 소재와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문화

기술을 제작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과 버추얼 프로덕션 기반의 기술 실증 과제,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도 협력 의제로 다뤘다.

GICON은 이번 마켓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공동제작 프로젝트 발굴과 업무협약 체결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GICON 관계자는 "해외 기관들이 GCC의 제작 환경에 보인 관심을 실제 공동제작과 교류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며 "광주를 찾는 제작사와 투자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아시아 주요 영화·콘텐츠 기관과 공동제작 및 기술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광주 영화·영상 제작시설의 해외 활용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홍콩무역발전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광양경제청, 부산 국제해양플랜트산업전 참가

친환경·AI·자동화 등 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

광양경제청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국제해양에너지산업전'에 참가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국제해양에너지플랜트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조선·해양에너지플랜트 전문 산업전시회로 오는 16일까지 3일 간 열

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글로벌 조선사를 비롯해 세계 15개국 170여개 기업이 참가해 60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관련 기자재 등 친환경·탈탄소 기술과 인공지능(AI), 자동화 등 내 유일의 조선·해양에너지플랜트 전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선보인다.

경제청은 해양에너지플랜트 분야 입주 앵커기업과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마련해 세풍, 황금산단과 하동지구 갈사만산단의 우수한 산단 투자환경과 입주 여건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경제청은 홍보부스에서 현대스틸 산업의 해상풍력 관련 제품 모형과 엘에스 엘테크놀러지의 해상풍력 연계 시스템 등을 전시하고 광양만권의 해양에너지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홍보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양경제청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국제해양에너지산업전'에 참가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광주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전략 찾는다

광주연구원, DJ센터서 정책토론회...지역기업 참여 방안 모색

전남광주 반도체 팹 유치 효과를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광주연구원은 15일 오후 1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례와 전남광주의 산업 기반을 살펴보고, 지역 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반도체는 기술·품질 기준이 까다롭고 납품 전 검증 절차도 복잡한 만큼, 지역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거쳐 실제 납품과 양산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모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조진희 총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맡아 '청주 사례로 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성장한 청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외부 전문기업 유치와 앵커기업의 분화·독립, 지역 기업 성장 등 소부장 공급망 형성 과정을 소개한다.

이승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 광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다. 지역의 패키징·테스트 등 후공정 기반과 광소자·광전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융합 분야를 점검하고, 반도체 팹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소부장 분야와 단계별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김운섭 조선대 첨단캠퍼스본부장, 박재복 조선대 기계공학



과 교수,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지역 기업의 공급망 진입 가능 분야와 기업 유치·지원·협력 방안, 시험·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봉진 광주연구원 부원장은 "청주 사례와 전남광주의 산업 기반을 함께 살펴 지역에 적합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방안을 찾겠다"며 "반도체 팹 유치 효과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공급망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정현 광기술원 박사, 'IEC 1906 Award' 수상

광섬유 센서 국제표준화 공로...2023년 이어 재수상

한국광기술원은 시험인증센터 김정현 박사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화 공로상인 '2026 IEC 1906 Award'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IEC 1906 Award는 국제표준 제정과 기술위원회의 활동에 기여한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박사는 광섬유 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IEC TC86에서 광섬유 변위 센서와 압력 센서의 국제표준 제정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년에는 광섬유 기울기 센서 표준 제정과 광섬유 변위 센서

신규 작업 제안 실적으로 같은상을 받았다. 그는 2016년부터 광섬유 센서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해 왔다.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교량·터널·빌딩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모니터링에 필요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도 참여했다.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를 통과하는 빛의 변화를 이용해 온도와 진동, 압력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 센서와 분포형 광섬유 센서 등이 있으며, 구조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감시



하는 데 활용된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섬유 센서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글로벌